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지원

전주시 완산구, 관내 29곳에 시민·관광객 편의 위해 분기별로 물품 지원

전주시 완산구 관내에는 29곳의 개방화장실이 운영되고 있다.

완산구 개방화장실 현황으로는 '대우빌딩(서노송동), 중앙성당, 백송회관, 한화교회, 봄베초밥 효천점(삼천동 1가), 푸른 맨션 상가 C동, 지리산 빌딩, 복지성당, NC웨이브 전주점, 맥도널드전주중화산점, 본병원, 평화동 문정성당, 동적골 가미술 골당, 동부시장, 한국집, 전통성당,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베테랑, 우석대 산학협력관(풍남동 3가), 전주초코파이체험장, 원스타오프, 서부시장(효자동 1가), 정혜사, 대일빌딩, 비전대학 토털카, 세스빌아파트(천변집), 서광빌딩, 마이칼비탕 족발보쌈, 남전주성결교회' 등이다. 이는 시민 또는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위해 마련된 곳으로 완산구는 '점보물, 두루마리 화장지, 종량제봉

번호	장소명	소재지	개방시간
1	대우빌딩(근로실)	기린대로 213(서노송동)	09:00-22:00
2	중앙성당	달빛로 231(서노송동)	08:00-20:00
3	백송회관	가림로 171(서노송동)	10:00-22:00
4	한화교회	양기길 156(삼천동1가)	09:00-24:00
5	봄베초밥 효천점	동해대로 2-2(삼천동1가)	09:00-21:00
6	푸른맨션 상가 C동	서서목길 877-1	09:00-24:00
7	지리산 빌딩	세실로 451(서노송동)	09:00-22:00
8	복지성당	관동로(가림) 221(가림동1가)	09:00-20:00
9	NC웨이브 전주점	관동로(가림) 24-47	10:30-21:00
10	맥도널드전주중화산점	백제대로 238(중화산동 27가)	09:00-24:00
11	본병원	풍남로 276(풍남동1가)	09:00-24:00
12	동적골 가미술 골당	동해대로 481-1(동해동1가)	09:00-22:00
13	동부시장	효곡로 18(효자동1가)	09:00-24:00
14	한국집	충장로 109(충장동1가)	08:00-22:00
15	전통성당	평안로 118(전동)	09:00-21:00
16	베테랑	평안로 118(전동)	09:00-19:00
17	전주대건신용협동조합	동해로 125(전동)	09:00-17:00
18	우석대	관기문로 185(오동)	09:00-21:00
19	우석대 산학협력관	관동로 353(서노송동1가)	10:00-18:00
20	원스타오프	신성로 1(서노송동 3가)	10:00-21:00
21	원스타오프	관동로(가림) 75(가림동)	11:00-21:00
22	서부시장	효곡로 18(효자동1가)	08:00-20:00
23	정혜사	효곡로 18(효자동1가)	08:00-17:00
24	대일빌딩	효곡로(가림) 2(서노송동1가)	09:00-20:00
25	비전대학 토털카	관동로 205(관동동1가)	10:00-21:00
26	세스빌아파트(천변집)	세서로 183(서노송동1가)	10:00-18:00
27	서광빌딩	풍남로 240(풍남동1가)	08:00-22:00
28	마이칼비탕 족발보쌈	관동로 102(서노송동1가)	10:00-22:00
29	남전주성결교회	북교로 155-18(전동동1가)	09:00-24:00

완산구 개방화장실 현황

투, 탈취제 등 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분기별로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이용객이 많은 개방화장실 4개소에 관리인력을 지원해 편리와 안전한 개방화장실 만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한 시민은 "대부분 분주한 식당이나 외진 곳,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힘든 곳에 위치하고 있다. 연간의 1곳당 100만 원(총 2900만 원)의 물품 지원은 현실 사용이 바쁜 것인가"라며 의구심의 소릴 냈다.

또 "홍보가 안 돼 시민 대부분이 모르는 실정에 찾더라도 지정된 개방화장실 가게가 바빠 묻기도, 오는 답변도 참 힘들었다"고 말했다.

염익준 완산구청장은 "편리하고 깨끗한 화장실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시민들께서도 개방화장실 이용 시 내 집처럼 시설물을 아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음악·예술 함께하는 '전주 봄 페스티벌' 개최

4월 1일-5월 31일 서노송예술촌 뜻밖의 미술관 일대·전주역·전주시청 광장서 진행

성매대집결지에서 문화예술마을로 탈바꿈된 서노송예술촌과 전주역, 전주시청 광장에서 만연한 전주의 봄의 기운을 만끽할 수 있는 축제가 펼쳐진다.



예술촌 거점시설 센터장, 인근 주민들이 참석해 봄 축제의 시작을 함께 축하했다.

전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서노송예술촌에 위치한 뜻밖의 미술관 일대와 전주역 등 전주시 일원에서 전주시민과 관광객들을 위한 '전주 봄 페스티벌'을 진행한다.

29일 뜻밖의 미술관에서 열린 '2023 전주 봄 페스티벌' 오픈닝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이기동 전주시의회 의장, 시의원, 서노송에

음악과 전시를 즐길 수 있다. 먼저 시청 앞 노송광장과 서노송 예술촌 인권공간·기억공간에서는 두 달간 조각품 전시가 진행된다.

또한 서노송예술촌 뜻밖의 미술관과 재활용센터에서는 미디어아트 전시를 만나볼 수 있다. 여기에 전주역 광장과 서노송예술촌 내 기억공간에서는 오는 4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에 뮤지컬페스티벌이 진행되며, 뜻밖의미술관 일원에서는 4월 8일부터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약 3시간 동안 지역 청년 작가들의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아트프리마켓도 열린다. /조아람 기자

전주시, 산업경제 육성 협업체계 구축 힘 모은다

도내 14개 연구기관장과 전략자문회의 발대식 가저



전주시는 29일 전주혁신창업허브 1층 대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자동차융합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북지역 산업경제 관련 14개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경제 육성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자문회의'의 발대식을 가졌다.

'강한 경제' 구현을 민선8기 최우선 과제로 정한 전주시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전북지역 주요 연구기관들과 힘을 모으기로 했다.

전주시는 29일 전주혁신창업허브 1층 대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과 한국탄소산업진흥원과 자동차융합원, 전북테크노파크 등 전북지역 산업경제 관련 14개 연구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경제 육성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자문회의'의 발대식을 가졌다.

산업경제 육성 전략자문회의는 시가 도내 연구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바탕으로 대내외 산업경제 환경변화와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고, 대규모 R&D 사업 등 중장기적인 산업경제 핵심 전략사업을 발굴해 지속가능한 지역산업 육성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출범하게 됐다.

이날 발대식에서 참여기관들은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 자리에서 참여기관들은 △전주지역 산업경제 전략사업 발굴을 위한 공동 협력체계 구축 △분야별 네트워크 구성 및 연계사업 상호협력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협력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등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다. 시는 전략자문회의를 향후 기관장

중심의 '전체위원회'와 실무자 중심의 '분야별 분과위원회'로 이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연간 2회 개최되는 전체위원회는 핵심 전략사업 선정 및 협력체계 방안 마련 등을 논의하게 되며, 분기별로 열리는 분야별 분과위원회에서는 대규모 R&D 국가사업과 인력양성 프로그램 발굴 등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이날 출범한 전략자문회의가 지역산업의 성장경로를 찾는 실마리를 제공하고, 기존 집중 육성해온 산업을 기반으로 미래먹거리가 될 신산업을 발굴하는 등 선순환의 경제구조

를 만들어 그 효과가 우수한 기업 유치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전북지역을 대표하는 연구기관들과 함께 산업경제 육성 협업체계 구축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강한 경제 전주를 꼭 이뤄낼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주시와 도내 14개 연구기관들이 상호협력해 전주와 전북발전을 이끌고, 전주시민들을 먹여 살릴 산업경제 핵심 전략사업을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은경 기자

전주시, 모든 도로 조명시설 LED로 전면 교체

2026년까지 메탈·나트륨 가로등→LED 가로등으로 순차적 설치

전주시가 밤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의 안전과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도로 위 가로등을 LED(발광다이오드)등으로 전면 교체하기로 했다.

도심 가로등이 에너지 효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LED등으로 교체되면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물론, 에너지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도 줄일 수 있어 탄소 중립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오는 2026년까지 어둡고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나트륨·메탈 가로등 3만8787개를 오는 2026년까지 LED 가로등으로 교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로등 조도 및 에너지 효율화 계획'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현재 전주지역에 설치된 가로등과 보안등, 터널등 등 도로 조명시설은 총 5만2149개로 이 중 25.6%인 1만 3362개만 에너지 효율이 높은 LED 조

명이 설치돼 있다.

이에 시는 전주의 전체 가로등의 74%를 차지하는 나머지 가로등을 순차적으로 LED등으로 전면 교체함으로써 전주의 밤거리에 생동감을 불어넣고, 강한 경제 전주의 초석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올해 관련 예산 22억 원을 확보한 상태로, 올해는 야간 관광객이 밀집한 전주한옥마을 일대와 통행량이 많은 상가 밀집지역, 전주의 특성을 알리기 위해 조성된 특화거리 주변, 범죄·사고위험이 큰 어두운 골목길 등을 중심으로 메탈·나트륨 가로등 1880개를 에너지 효율이 뛰어난 고 조도가 높은 LED 가로등으로 교체기로 했다.

동시에 시는 올해 가로등 교체사업과 더불어 에너지 효율화계획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조명시설 전주조

사 및 LED 교체 종합계획 수립 용역'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효율·효과성, 파급효과, 유지·관리 방안 등 다양한 제반 효과를 검토한 후, 오는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낡은 가로·보안등 3만 8787개를 교체기로 했다.

시는 오는 2026년 교체작업이 모두 완료되면 연간 도로 조명시설로 인한 전기사용량이 기존 2만5415MWh에서 1만666MWh 줄어든 1만5249MWh 정도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전기요금도 연간 약 16억 원이 줄어들어 예산낭비도 막을 수 있다.

시는 향후 가로등 교체사업으로 인해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지역 대표 관광지를 찾는 방문객이 어둡고·칙칙한 밤거리에서 다양한 재미를 즐길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은경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실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김정수) 전주대 대학생전문이용소방대는 전주대학교에서 재난 시 신속한 소방차 출동로 확보 위한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을 진행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은 소방차와 시민이 함께 참여해 각종 재난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해 신속한 초기 대응토록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매월 실시하고 있다.

이날 훈련에는 소방공무원 4명과 전

주대 대학생전문이용소방대 10명이 참여해 전주대학교 노천극장에서 대학생 대상으로 소방차 길 터주기 가두 홍보, 화재 안전 교육 등을 실시했다.

소방차 길 터주기 행동 요령으로는 '교차로 피한 도로 오른쪽 가장자리 일시 정지, 일방통행로 시 오른쪽 가장자리 일시 정지, 편도 1차선 도로시 오른쪽 가장자리로 일시 정지, 횡단보도 시 보행자는 일시 멈춤' 등이다.

/김영태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위험물 운송 운반 차량 관련 규정 위반 단속

위험물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위험물 운반차 자격제도가 지난해 6월 10일부터 전면 시행 됐다.

이에 전주덕진소방서(서장 김현철)는 이동탱크저장소 및 위험물 운반 차량 등에 대해 가두 감사를 실시했다. 이동탱크저장소의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운송차 자격 취득 여부, 위험물 수납 용기 적정 수량 적재 여부 등에 대해 중점 단속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